

- 주요 뉴스: 미국 일부 빅테크, 향후 실적 부진할 가능성. 경기 불확실성 등을 시사
 - 미국 금융당국, 은행권에 암호화폐 관련 위험 확산을 주의하도록 권고
 - 독일 '22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에너지 가격 급락 등이 원인
 - 중국 '22년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전월비 하락.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이 영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악화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1.1%], 금리 하락[-1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Tesla의 실적 둔화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주 강세 등으로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FOMC 의사록 공개 관련 경계감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1%,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향후 금리경로 불확실성 등이 배경
독일은 '22년 12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 등으로 6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278.3원, +7.3원) 0.6% 상승, 한국 CDS 하락

		1/3일	1/2일	전일대비			1/3일	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24.1	휴장	-0.40%	국채 금리 10y	미국	3.74%	휴장	-14bp
	유럽	434.18	428.95	1.22%		독일	2.39%	2.44%	-6bp
	중국	3,116.5	휴장	0.88%		영국	3.65%	휴장	-2bp
	일본	휴장	휴장	-		CDS 5y	한국	53bp	55bp
	한국	2,218.7	2,225.7	-0.31%	위험 지표	중국	71bp	75bp	-4bp
환율	달러지수	104.69	휴장	1.13%		EMBI+	-	375	-
	유로화	1.0548	1.0667	-1.12%		VIX	22.90	휴장	5.68%
	엔화	131.01	130.80	-0.16%		WTI유	76.93	휴장	-4.15%
	위안화	6.9150	휴장	-0.24%	원자재	구리	376.9	휴장	-1.09%
	원화	1,271.00	1,272.60	0.13%		금	1,839.6	휴장	0.8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일부 빅테크, 향후 실적 부진할 가능성, 경기 불확실성 등을 시사

- Tesla, Apple 등 몇몇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 (각각 -12.24%, -3.74%).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Tesla는 작년 전기차 인도 실적이 목표치 하회하면서 주가가 폭락. Apple 역시 중국 내 생산차질에 따른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달러 하회
- 시장에서는 금년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 예상이 많으나 일부에서는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되고 이는 계속해서 수요부진 등 부정적인 경제여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 이에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연준의 조기 통화긴축 종료 전망이 많을 수 있지만, 연준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매파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US Bank의 Eric Freedman). 향후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나타날 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될 소지(Wolfe Research의 Chris Senyek)
- 금년 경기침체가 발생해도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분석(CFRA의 Sam Stovall). 다만 높은 금리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기업 실적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Wolfe Research의 Chris Senyek)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금융당국, 은행권에 암호화폐 관련 위험 확산을 주의하도록 권고

- 연준, 연방예금보통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횡령, 법률적 불확실성, 불투명한 기업정보 등의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은행이 암호화폐의 보유 혹은 발행에 나선다면, 이는 안전성 기준 또는 기존의 업무 과정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미국 전 뉴욕 연은 총재, 미국은 경미한 수준의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

- 더들리 전 총재는 연준의 물가안정 노력을 감안한다면 미국은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 다만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측. 한편 연준은 결국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끝낼 것이라고 참언

■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향후 2번의 회의에서 큰 폭 금리인상 가능

- 카자크스 총재는 ECB가 2월과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 다만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금리인상 폭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부연

■ 독일 '22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에너지 가격 급락 등이 원인

- '22년 12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각각 11.3% → 9.6%, 0.0% → -1.2%). 다만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당국의 일시적 혜택이 중단되는 1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다소 높아질 전망
- '22년 12월 실업률은 5.5%로 전월(5.6%) 대비 소폭 하락했고, 실업자 역시 전월비 1.3만명 감소하여 11월(1.5만명 증가)에 비해 고용 상황이 개선. 노동부는 러우 전쟁의 영향이 이전보다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

■ 독일 연구기관 Ifo, 제조업체의 원자재 부족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

- 작년 12월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0.7%가 원자재 구입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월(59.3%) 대비 감소한 결과.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상황이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에 좌우될 것으로 평가

■ 중국 '22년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전월비 하락.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이 영향

- '22년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0을 기록하여 전월(49.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5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 공급 위축, 대내외 수요 둔화, 고용 악화 등으로 향후 제조업체의 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추정

■ 중국 정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제재 강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가능

- 외무성은 일부 국가에서 중국발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목적도 존재한다고 주장. 이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2년 12월 FOMC 의사록, '22년 11월 JOLTS 구인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고물가 통제과정에서 우려되는 3가지 리스크 - 블룸버그

(What Could Go Wrong for the Federal Reserve in 2023)

- 금년 연준은 목표물가 달성을 위해 통화긴축을 지속할 전망. 관련 리스크로 첫째, 최근 통과된 1.7조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 및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이 통화긴축 효과를 상쇄하여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여건이 전개될 소지
- 둘째,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2%일 때 중립금리를 2.5%로 추정. 이에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5% 정도로 예상. 그러나 최근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연준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 시 5%의 중립금리로는 경제활동 억제 효과가 불충분할 가능성
- 셋째, 최근의 상품가격 하락은 대부분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결과. 연준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세계 에너지 시장, 새로운 질서 형성이 전개 - Financial Times

(A new world energy order is taking shape)

- 그간 세계 에너지시장을 지배한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시대가 저물고, 페트로 위안(petroyuan)이 부상.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脫달러화의 일환으로 원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위안화로 거래. 페트로 위안 확대 시 저가의 에너지 확보로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
- 반면 페트로 달러 시대에서 발생한 신흥국 부채 위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 아울러 중국의 대규모 에너지 비축과 이와 관련한 석유제품 통제로 서방국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소지.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 다각화, 친환경 시스템 전환 등의 대책이 요구

■ '23년 세계경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Expect the Unexpected in 2023: Cyberattacks and the Next Covid)

-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봄철을 맞아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 또한 중국의 대만 공격은 그 파장이 상당할 수 있으며, 이란의 시위도 정권 교체 또는 시위 진압 등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글로벌 사이버 공격과 새로운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팬데믹 발생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 미국 주요 은행, 금년 미국 경기침체 발생 등을 전망 - 블룸버그

(Here's (Almost) Everything Wall Street Expects in 2023)

- 블룸버그가 은행권 이코노미스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며, 컨센서스는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pivot)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강도가 낮은 경기침체 발생
- 다만 작년 컨센서스 전망치가 실제와 크게 달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도 존재. Goldman Sachs, JPMorgan, UBS 등 일부에서는 물가 압력이 둔화되면서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컨센서스와 다를 수 있다는 의견 제기
- 한편 강도가 낮은 경기침체 예상이 경제적 피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가 필요. 심각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65%로 추정하는(Ned Davis Research) 경우도 존재

■ 세계경제, 경제블록 중심 재편 등으로 글로벌 생산성 둔화될 우려 - 블룸버그

(Fresh Fragility in Global Trade Set to Be Revealed in 2023)

■ 미국 고수익채권 수요의 감소,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 Financial Times

(US junk loan investors brace for increase in downgrades and defa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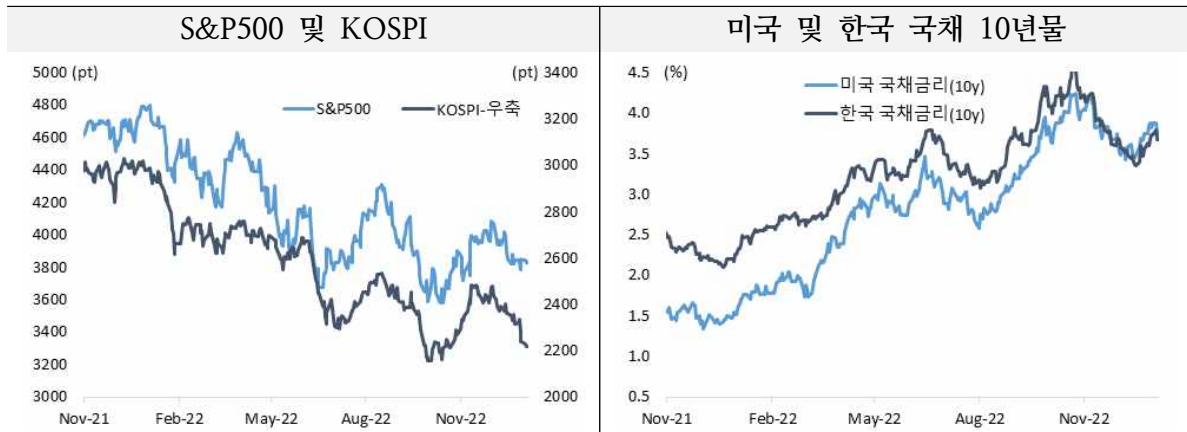
■ ECB의 금리인상, 이탈리아 부채 리스크 증폭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Financial Times

(ECB rate rises expose fears for Italy as eurozone's weakest link)

■ 일본은행, 수익률곡선제어 종료 이후 점진적인 긴축전환이 요구 - Financial Times

(Bank of Japan needs the courage to change cours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